투약량 "漸減療法"… 輕症高血壓에 効果있다

간헐적 治療의 가능성보여줌으로써 환자의 투병의욕고취시켜

표준투약량의 1/4만으로도 有効
실험中 생활양식은 變更안해

美國心藏病學會연차대회에서 Washington Center Clinical Studies 소장인 F.A. Finnerty 박사가 경증고혈압환자의 확장기압을 이뇨제로 6개월간 정상화시키고 다음에 이뇨제 투여를 단계적으로 절감, 최종적으로 투여를 완전 중지시키더라도, 환자의 반수 이상은 정상혈압(85mmHg이하)을 4년반 이상에 걸쳐 유지할수 있다는 사실을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박사가 「漸減療法(Step-down therapy)」라고부르는 이 치료법을 시도한 연구에서 이뇨제의 투여를 계속할 필요가있는 환자에서도 54개월의 연구기간중 표준유지량의 4분의1의 이뇨제로도 혈압을 안정화할 수있음을 발견했다.

죠오지 워싱턴대학 내과 교수이기도 한 박사는 중등도이상의 중증고혈압환자를 대상으로한 이전의 연구에서, 혈압을 일단 저하시켜 유지한다면 복용하는 약제의 수를 줄이고(3점에서 2점또는 1점으로) 또 용량을 감축해도 과반수의 환자에서 악영향이없었기 때문에 이번의 실험을 고안해냈다고 한다.

대상이된 환자 67例는 높은 리스크군을 대표하는환자들로서 53例에 심혈관질환의 가족력이 있었고, 43例가 헤비스모커, 14例가 당뇨병(그중 7例는 인슐린의존성), 15例가 흑인 남자, 전원이 grade 2이었다.

연구시작때 환자는 클로르탈리돈 1일 50mg의 투여를 받았는데 6例는 칼륨제, 8例는 알로푸리놀을 병용했다. 3개월 간격으로 이뇨제의 용량을 25mg 이어서 12·5mg으로 줄였고 최종적으로는 투여를 중지했다. 확장기압이 85mmHg이하를 유지하고있는한, 그 이상의 치료는 하지않았다.

최초에 이뇨제의 용량을 50mg에서 25mg에서 25mg으로 감소시켜도 혈압이 상승한 환자는 1例도 없었다. 용량을 12·5mg으로 줄여 인후에야 8例의 환자에서 혈압이 85mmHg 이상이되었다. 나머지 환자 59例에서 클로르탈리돈의 투여를 중지한 결과 확장기압은 38例에서 85mmHg 이하가되었으나 21例에서는 85mmHg이상이 되었다.

이들 환자에 다시 하루 12·5mg(이뇨제)를 투여한결과 나머지 연구기간중에 혈압이 상승한 경우는 1例도 없었다. 투여를 중지한 환자 38例중 36例는 그이상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었으나 2例는 1일 12·5mg의 이뇨제요법으로 되돌아갔다. 용량을 12·5mg으로 줄였을때 혈압이상승한 8例중 6例는 1일 25mg의 용량으로 유지되었다.

주목되는것은 실험기간중에 환자의 생활양식을 변경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디스커션에서 Finnerty 박사는 「감량이나 특히 권고되는 식사에서의 염분의 섭취량을 줄인다면 치료를 중지할수있는 환자수는 늘어났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전의 연구에서중증고혈압환자의 혈압을 니트로프루사이드(nitroprusside)로 급격히 내리고 140mmHg의 확장기압을 수일만에 85mmHg으로 내린결과, 그때까지 저항성을 일으키고 있던 약제로서도 유지할수 있었다고 한다. 「확장기압 90~100으로 상승해도 6~8개월간에 140이되는일은 없었다. 『싸이클을 절단』 시킨데서 환자는 다시 감압제에 대한 감수성을 되찾았다.」

또한 박사는 이 방법이 경증고혈압에도 적용될른지는 알수 없다고 전제하고 「전연치료하지 않아도 결과는 같지 않겠는가고 지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환자군에 대해 치료를 하기전에 혈압을 적어도 10회는 조사했다. 우리들이나 그밖의 사람들의 경험으로서 85까지 자연강하하는 例는 거의 없었다. 90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있어도 그이하로는 되지않았다」고 박사는 말한다.

한편 당초의 확장기압이 92~104mmHg 이었던환자 67例에 대한 연구에서 연은 이 소견은 경증고혈압에 대한 「생애의 지속적인 요법이 아니라 간헐적 치료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러한 가능성은 치료상의 지시에 따를 의욕을 높일뿐만 아니라고 혈압환자의 투병생활에 「밝은 전망」을 주게된다고박사는 강조했다.

의학의 뜨락 (醫學의 뜨락)

◇人工바이러스利用 癌치료실험에成功

熱이나 감염을 일으키지 않고 生體의 免疫系를 자극하는 人工바이러스가 癌이나 바이러스性 疾患치료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 人工바이러스는 앰플리젠(Ampligen)으로 불리는데 副作用없이 대부분의 바이러스와 같이 免疫반응을 유발하는 능력이있다.

공동개발자인 하네만(Hahneman)大學의 W·A카터博士가 실시한 實驗에서는 짐토끼, 쥐, 배양중의 人間腫瘍에서 양호한 성적이 얻어졌다. 또 인간에서의 예비적인 시험에서도 有害한 副作用은 인정되지않았다고 했다.

◇면역제어因子 세계최초로 발견

B세포가 분비하면서 B세포자신에 작용하여 항체생산을 촉진하는 면역제어인자가 세계최초로 발견되어 日本면역학회에서 두그룹이 보고한 이번에 두그룹이 보고한 B세포lympokine은 高分子와 低分子의 두종류인데, 大阪本忠三교수등은 사람·배양세포化 B세포 CESS의 배양상청액중에 분자량 약2만의 단백성고분자 B세포 lympokine(B-BCDF:B세포에서 유래한B세포분화因子)을 발견하였다.

한편 濱松醫大의 미생물학교수 吉田孝人氏등은 사람의 扁頭腺B세포의 배양액에서 B세포에 작용하여 항체생산을 촉진하는 저분자의 B세포 lympokine, LMAAF(저분자면역항체촉진因子)를 발견하였는데 이것의 분자량은 1천~4천이었다.

◇LDL 운반체로 癌의목표요법開發

스웨덴 카롤린스카研究所藥理學研究部門에서는 抗癌劑가 암세포만 주로 공격하도록 하는 목표요법으로서 低密度 Lipo단백질을운반체로 이용하는 방법을개발, 빠르면 올해안에 임상시험을 실시할 계획으로있다.

LDL은 血中의 콜레스테롤을 말단세포에 운반하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세포표면의 수용체(receptor)를 통하여 細胞內로 들어간다. 細胞表面에 존재하는 LDL수용체數는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훨씬 많아서 白血病세포의 경우 4~25배나 된다고 한다.

그래서 LDL에 抗癌劑를 결합시켜 투여하면 암세포에 多量의 항암제를집어 넣을수 있다는 것이이 목표요법의 원리가 된다.

◇日서γ-인터페론의 抗癌能力우수 報告

高久忠勝 東京大醫學部교수등 研究그룹이 작년 8월부터 실시해 온 감마인터페론의 抗癌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실험의 결과가 지난달 4일부터 일본 삿뽀로에서 개최된 제32회 日本化學療學法會에報告됐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연구진은 금년 3월부터 감마인터페론을 癌환자에게 투여하면서 임상적으로 유효하다고 판정된 남자 11명, 여자 13명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방광암환자 4명중 2명환자의 종양이 거의 소멸되었고 통증도 사라졌으며 또한 4주간 이상이나 재발도 없어 임상학상 뛰어난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腎臟癌 1명, 만성임파성백혈병 1명 菌狀息肉症(血液癌의 一種) 1명등 6명에 있어서는 腫瘍巢가절반이상이나 축소되었고 4주이상 재발하지 않아 마찬가지로 有効함이 판정되었다.

그런데 감마인터페론이처럼 감염한 抗癌力을 갖고 있다고 보고한 임상실험은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非A非B肝炎항체 日서診斷Kit개발

일본대학 의학부 제1병리학교수 志方俊夫氏등은 선진국에 최후로 남아있는感症이라고 말할수 있는 非A非B型(NANB)肝炎ウイルスに관한 모노클론抗體의 개발을 업계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同씨등은 이 모노클론抗體를 사용하여 RIA法에의한 진단Kit의 개발을목표로하고 있는데 연구가진행되면 非A非B型 肝炎의 백신도 개발할수 있을지모른다고 밝혔다.

현재 연구진은 非A非B型 肝炎의 관련항체 4~5種을 얻었고, 이중의 하나가 IgM이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 모노클론항체는 A형 바이러스에도 B형 바이러스에도 반응하지 않았다고.

日本慶應大 醫學部 內科學교실研究팀 「K—라스」라 명명
간장암의 發現메카니즘 解明에 귀중한 端緒제공

日本 慶應大 醫學部消化器內科學교실의 中村達也와 森實敏史는 최근肝臟癌의 원인이 되는것으로 보이는 암유전자를밝혀내는데 성공했다.

이제까지 인체에 발생하는 癌가운데 16종의암에 관계되는 유전자가확인되었는데 간장암 유전자는 발견된적이 없다.

연구팀은 B型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후 간장암에걸려 사망한사람의癌세포를 배양, 그DNA를 「NIH3T3」이란 쥐의 피부에서 떼어낸 특수세포에 도입하는데 성공했다.

이 특수세포는 정상세포이지만 어떤 계기에서도 간단히 癌化하는 불안한 세포로서 주로 암유전자를 확인하기위한 실험에서 종종 이용되는 세포인데 이번 실험에서도 癌化됐다.

당 암화된 NIH3T3세포의 DNA를 조사해 본결과 「K-ras」라고불려지는 사람의 유전자가 확인되었다. 「K-ras」는 이미 대장암등의 인체암에서 확인된 癌유전자인데 肝臟癌도 역시 이 유전자에의해 發現되는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구진은 「K-ras」유전자와 B型간염바이러스 DNA의관계를주목해서 실험한결과 B型간염 바이러스의 DNA도 암화된 NIH3T3세포가운데 포함되어 있는것을 알아냈다.

이것은 B型간염 바이러스가 암유전자를 활성화시켜 간장의 癌化를촉진할 가능성이 크다는것을 의미하기때문에 간장암의 發現메카니즘 해명에 귀중한단서가 될것으로 전망된다.

國內 唯一의 셀레늄(Selenium)劑製

쎄 레 탄

연질캡슐

1캡슐중의 함유량
Selenium 50 mcg
(Selenium yeast 83mg)
Vitamin E 200 I.U

적응증
심장질환, 고혈압,
감염성질환, 관절염,
視力疾患等 豫防

원료공급원: HIGH SELENIUM YEAST NUTRITION 21 NUTRITION 21. LA JOLLA. CALIFONIA 92038.

제조원: UNION PHARM. CO., LTD. SEOUL. Busan. Korea

유니온製藥株式會社
本社: 釜山市 東萊区 巨堤洞 714의 16番地
電話: 82-4285·82-5286番
서울事務所: 서울特別市 恩平区 佛光洞 286-51
電話: 385-4728·387-1584番